

##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갭’, ‘을’ 관계에 관한 기사들을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우리 업계에서도 이러한 ‘갭’, ‘을’ 관계가 분명 존재해 왔고, 경기상황에 따라서 ‘갭’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수급이 안정되지 않고 항상 불안한 사업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양적 성장을 추구해온 계열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체종계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단순한 수급의 안정뿐만 아니라 초생추 품질관리를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종계가 늘어나다 보니 수급의 완충기능이 떨어져 생산 과잉시에는 오히려 시장에 판매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반대로 생산 부족시에는 구매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수급의 완충기능은 떨어졌지만 초생추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왜냐하면 계열사 구매력이 떨어져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에 매력을 잃은 개인업자들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통물량의 감소를 의미하며 부화장들은 생존을 위해서 계열사와 직접 계약에 의한 판매를 해야 했다. 이렇게 계약에 의한 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초생추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가격이 안정되면서 자체종계 비율을 조금 낮추고 초생추 구매량을 조금 늘리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원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신 창 순 부장  
(주)삼화원종

러한 흐름 속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반기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1. GPS 수입량

2013년도 GPS 수입예상량은 167,500수로, 2012년도 수입실적 대비 27.3% 줄어든 물량이다. 앞으로 이 정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종계입식량을 제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GPS의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종계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는 물량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저수준의 물량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1〉 연도별 GPS 수입실적

연도	GPS 수입수수	전년대비 증감
2013	167,500수(예상치)	▽27.3%
2012	230,500수	▲15.7%
2011	199,200수	▲38.2%
2010	144,100수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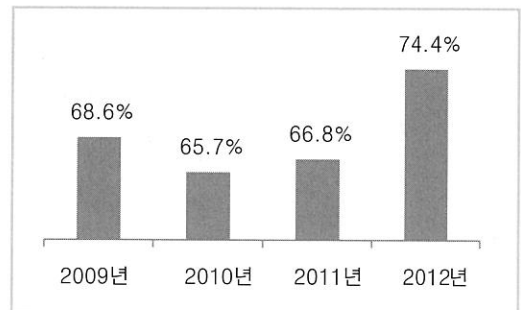
## 2. 종계입식동향

최근 계열업체들은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가동률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가동률에 따라 생산원가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재료인 육계 사육수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이는 종계입식량 증

가로 이어지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황에서도 사육수수를 줄이지는 않고 있다. 계열업체한테 중요한 것은 초생추 시세가 아니라 공장 가동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업자들은 초생추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업을 떠나거나 종란으로 납품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계열사 입식량은 늘고 개인입식량은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다. 〈표 2〉에서 보듯이 2012년 전체 종계입식량 중에서 계열업체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74.4%를 차지해 과거보다 약 6% 이상 늘었다. 앞으로도 계열업체의 비율이 더욱 늘어나 75~8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전체 종계입식량중 계열업체 종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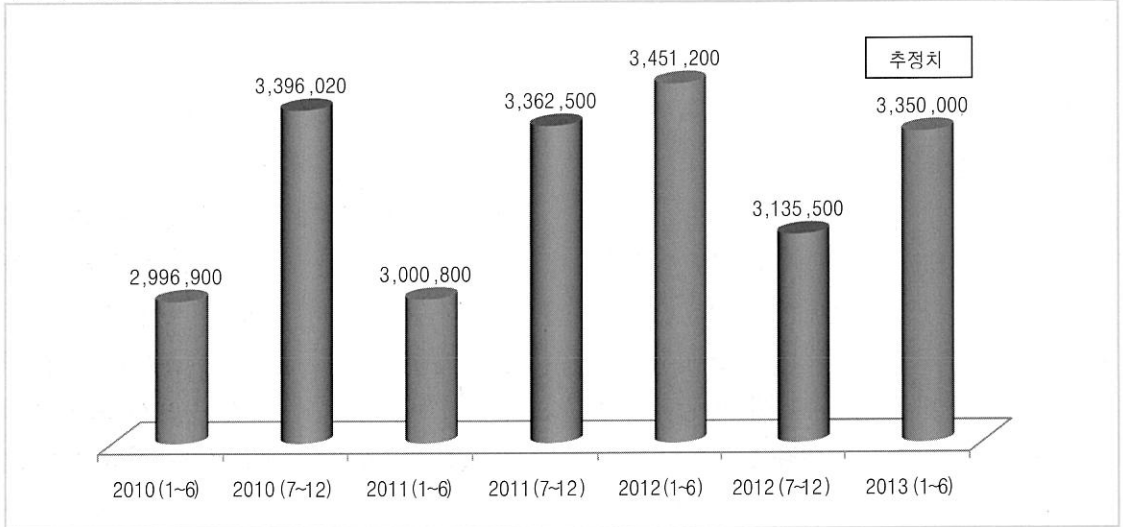
## 3. 생산성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종계성적이 매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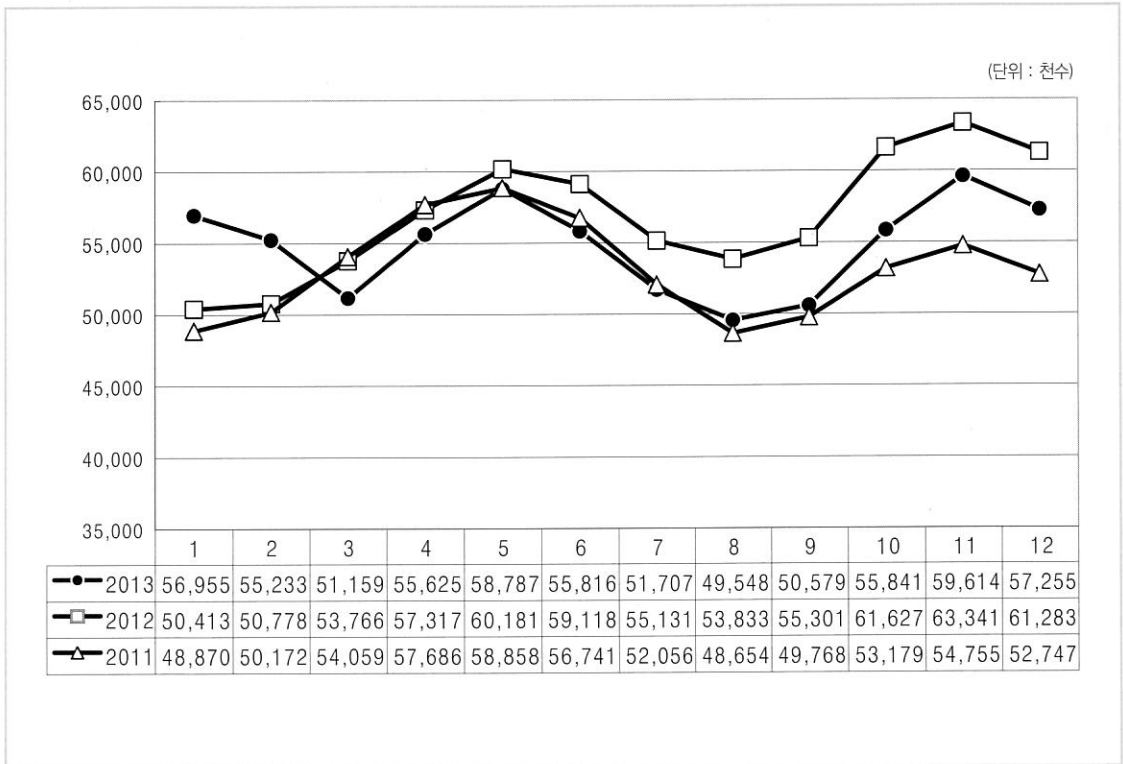
평균 종란생산수는 150개 이상을 상회하

특집 ▶ 2013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표 3〉 육용 종계 입식현황



〈표 4〉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며 평균 배부율도 약 7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년 전에 평균 종란생산수가 140개 이하, 평균 배부율도 75% 이하에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좋아진 성적이다. 이러한 성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 성적 또한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체마다 평균 생산수 300 정도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올 하반기 생산성도 기후의 변수만 없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생산잠재량

〈표 3〉에서 보듯이 2012년도 하반기에 종계 입식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도 전반기 종계 입식량도 전년도 동기 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표 4〉의 그래프처럼 하반기에 생산잠재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환우, 연장생산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물량을 대체할 수 있어 육계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초생추 시세를 올리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특히 복 이후의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통적으로 비수기이므로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연말에는 초생추 생산량이 증가하여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

#### 5. 맺음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던지 또는 반대로 하락한다던지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업계의 무게중심이 계열사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며 계열사는 예측 가능한 경영을 위해 원가를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저 원가 선에서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정도의 시세등락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원가경쟁력이 없는 종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보다는 농장 시설들이 많이 현대화되었고 사양기술 또한 많이 보급이 되었다. 또한 육종의 발달도 눈부시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생산성 향상은 기본이고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종계농장에서부터 부화장, 육계농장까지 이제는 생산성이 아니라 품질이다. 품질을 높이고 그에 합당한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끝맺음 한다. 